KOREAN J. DIETARY CULTURE
Vol. 11, No. 5 (1996)

안동지역의 제례에 따른 음식문화(II)
-동제(洞祭)와 제물(祭物)-

윤 숙 경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1996년 8월 21일 접수)

Dietary Culture for Sacrificial Rituals and Foods in Andong Area(II)
-Village Sacrificial Rituals and Foods-

Suk-Kyung Yo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Living Sci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ugust 21, 1996)

Abstract

The sacrificial foods using at 88 villages in Andong area where the village sacrificial rituals are performed, were investigated in 1994. The finding are as follws; 1. Since the village sacrificial rituals keep ancientry, white Baeksulki without any ingredients is used as Ddock (a steamed rice cake) in 74 villages, and in 5 villages the Baeksulki was served just in Siru (a tool used to prepare Ddock). The type of meat serving in rituals has been changing from large animal to small animal and the type of light from bowl-light to candle. 2. Though the ritual observes Confucianism style, memorial address was offered in 34 villages and only in 8 villages, liquor was served 3 times and the address was offered. In 60 villages, liquor was served only once, and calling village god, bowing twice, and burning memorial address paper were performed in order. Burning paper has been meaningful in rituals. 3. Tang (a stew) was served in 21 villages, and in 18 villages even Gook (a soup) was not used. The numbers of village which do not use cooked rice and Ddock are 14, respectively. 4. Fruits are essential in rituals foods. In 63 villages, 3 kinds of fruits are served and this is contrasted with even number of fruits in Bul-Chun-Wi Rituals. 5. In 25 villages, fish and meat are not served. As meat, chicken in 19 village are served. Meat Sikhae (a fermented rice beverage) prepared with meats or fish are served in 5 villages. Slice of dried meat is served in 73 villages commonly. 6. In gender of god for village shrine, woman in 43 villages, couple in 17 villages, man in 9 villages, mountain god in 2 villages, villages tree, etc were enshrined. In 52 villages liquor is served in rituals (liquor is used in 58 villages including serving god), in 28 villages sweet liquor (Gamju) is served for god (sweet liquor is used in 46 villages), and liquor, water, or sweet liquor is just displayed on table but not served in 8 villages. Incensing is found to be not common in village ritual, only in two villages it is performed. The most appropriate rituals food is thought to be pig for mountain god. Home dishes can not be used in village ritual and spoon is not used and chopstick is prepared from wild plant. Meat and fish are used in the raw.

I. 서 론

전통사회에 있어서 향교의 석전(釋奠)이나 서원의 향사(享祀)가 반례(班禮)로서 관행된 제례(祭禮)라면 동제는 농어민이 주체가 되는 향촌주민의 공동체 제의(祭儀)이다. 의례는 전통적인 관념과 신앙체계가 일정한 행위의 양식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으로 전통적인 지식이 교환되고 정당화 되는 장이며 상고성(尙古性)이 강하다.

동제(洞祭)는 초월적인 존재인 마을의 수호신(골매기)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천재나 농작물의 병충해, 전염병, 호랑이 같은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생산의 풍요와 마을의 대소사가 순조롭게 풀려 나가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제사하는 마을 공동 제의(祭儀)인 것이다. 그러므로 동제는 동민 모두가 참여하여 치루게 됨으로 제사를 통한 마을의 단결과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은 부락민으로서의 일체감과 상호협동하는 기풍을 낳게 하고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은 소원이 성취된다는 기대감에 고달픈 일상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기도 했던 것이다[1].

조선총독부에서 1937년 우리나라 동제실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522개의 부락이었으며 산신제가 이 가운데서 196개소, 서낭제가 99개소, 그외 부군제, 여랑제 등이 121곳, 기타 106곳이었다. 산신제가 이렇게 많은 것은 구당서나 삼국유사에 백제나 신라에서 산곡지신(山谷之神)이나 오악삼산신(五岳三山神)에 제사 지낸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도 사악신(四岳神)이나 산천신(山川神)을 나라에서 관장하여 제사 지냈고, 민간에서도 고을에 진산을 두어 그곳에 산신당을 지어 제사 지낸 풍습의 흐름으로 보아지며 동제의 기원이 천신숭배의 흐름으로 볼때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2].

동제는 기록상으로 「후한서」 동이전(東夷傳)에 있는 삼한(三韓)의 제천의식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고 국조오례의(권 1 길례)[3]에 있는 풍운뢰우산천(風雲雷雨山川)과 성황(成隍)에 대한 제의, 경국대전(권 3 제례)[4]에 명산대천(名山大川)에 대한 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옛날부터 내려온 제례임을 짐작할 수 있고 후대에 와서 중국의 제천의례와 중첩혼합되어 민간제례로 내려온 것임을 볼 수 있다[5]. 동제는 신에게 기원을 하는 제례의식인 당제(堂祭)와 놀이인 당굿의 두가지 면이 있으나 놀이는 많이 없어지고 대개는 제례의식만 남아 있다. 제례는 제주가 주관하는 유교식 제례와 절충된 형식으로 여기에 무속의식이 혼합된 것이 있고 제례에 무당이 관여하는 것이 있다. 무당이 주관하는 "별신굿"은 동신의 제례와는 분리되어 거행되며 문경군 호계면(聞慶郡 虎溪面)의 용당(龍堂)별신굿이나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蔚珍郡 箕城面 峰山里) 용왕(龍王)굿처럼 당제사는 매년 모시지만, 별신굿은 수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 것이다[1,2].

동제는 대체로 한밤중에 지내는 제사로 비의적(秘儀的)성격의 부문으로 참여자는 엄선된 부정(不淨)없는 제관으로 삼고 제의절차의 진행과정이나 제장(祭場)에는 잡인의 참여를 금기하고 있다[6-9]. 음복은 일종의 오신행사(娛神行事; 신을 기쁘게 하는)로서 사제자(제관)와 마을의 전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조상신 또는 골맥이와 어울리는 신인공락적(神人共樂的)인 향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별신굿"이라 하면 더욱 이런 성격을 짙게 나타내고 있다. 별신굿은 제관 이외에 직업무(職業巫)가 주제(主祭)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동제들이 유교식 제의 절차를 취하는 데 비하여 두드러지게 전통적인 무제(巫祭)의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1].

이러한 동제는 대개 수백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동제에 따르는 음식을 안동지역 사람들은 대개 "제물(祭物)"로 표현하고 있다. 1994년도 안동민속박물관에서 현재 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을을 조사한 결과 88개 마을이나 되었다[6]. 이는 안동지역의 불천위제례와 제수[10]에서 안동의 지역적 특성을 밝힌 바와 같이 이곳 주민들의 보수성과 교통오지 등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안동지역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동제 제물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에서 모셔진 수호신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제물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 날로 동제 실시수가 줄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라도 부락공동체의 제의 음식문화를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일면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안동지역의 동제

경북지역에서는 동제를 당제(堂祭), 당신제(堂神祭), 산제(山祭), 성황제(城隍祭), 서낭제, 당고사(堂告祀), 동고사, 별신제 등으로 부르며 지역적으로 그 명칭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토속신앙의 한가지다. 토속신앙인 자연숭배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한다는 하늘에 대한 천신숭배로 이어지고 부족사회에서 국가사회로 발전된 과정에서 그 시대와 사회가 바라는 것에 부응하고 그 시대사람들의 감정을 이입시켜 동제의 성격, 신앙의 대상, 제례의식의 변화 등이 차차 변모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현재 올리고 있는 동제는 관의 지원없이 동민 스스로 기획하고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1].

제사의 대상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 되기도 했지만, 원래 우리나라 토속신앙은 하늘, 산, 나무, 바위, 동굴, 샘, 강, 바다 등 자연물에 대한 신앙인 다신적인 요소가 있다. 인간의 하늘숭배는 하늘높이 솟아있는 수려한 명산은 하늘과 가까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신과 인간과의 교감의 통로이고 신이 좌정하는 곳이기도 하고 신 자체이기도 하다. 평지에 내려오면 하늘과 가까운 곳은 오래되어 키가 큰 나무이며(당산나무, 서낭나무) 신이 내린다는 장대(神竿, 서낭대)인 것이다.

동제의 대상인 신은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고 종류도 많다. 제사의 대상에 돌로 제단을 쌓고 금줄을 치고 모시거나 사당을 지어 신체를 모시기도 한다. 동신의 상징물로는 바위(골막이 돌), 나무(서낭나무), 사당에 모신 위패나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한 조각품이나

그림 등이 있다[1,6]. 마을 수호신은 단일 기능은 물론 아니지만 이것을 크게 기능적으로 나누어 보면 한재(旱災), 수재(水災), 풍재(風災), 병란(兵亂), 역병(疫病) 등으로부터 가호를 비는 천신, 산신, 용왕신 그리고 생전의 용맹과 위풍으로 제액해 보려고 모신 사당과 생산과 풍요를 비는 삼신당, 여랑당, 부인당 등 여신을 모시는 곳과 부부를 모시는 서낭당 같은 것이 있다[1,2,5]. 천신당이나 산신당은 부락의 진산(鎭山) 중턱이나 사찰의 본당 뒷편에 있다. 신체는 호랑이와 같이 있는 신선의 그림이다. 호랑이를 신격화하여 산신령(山神靈)이라고도 한다. 산신은 원래 여성신이었으나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옴으로 남성신으로 변모되었다고(김용덕) 하고 있으나, 단군신화와 도교의 신선사상의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1].

동신은 안동지방에서 현재 이행하고 있는 88개 마을[1] 동제 중에 골매기나무(서낭나무, 당나무)로 동수인 신목에 왼새끼를 둘러 일반수목과 구분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리고 또 신목밑에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 골매기돌을 놓거나 놓지 않거나 하며 사당을 짓고 골매기돌이나 동물의 조각 또는 화상(畵像)이나 지방을 모시는 것, 아무것도 없이 금줄만 나무나 바위나 샘에 쳐서 골매기를 표시한 것 등 여러가지가 있다. 사당 주위에는 당산나무가 있고 당 주변은 성역으로 되어 부정한 잡것의 근접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당나무의 훼손을 금하며 주위는 정결하게 유지되어 있다. 골매기당은 부락 근처 큰 길이나 부락 입구 또는 부락으로 들어가는 고갯마루 등에 있으며 그 곁에 있는 당상나무는 대개 느티나무로 되어있고 나무에는 아이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헝겁조각 등의 부적들이 걸려 있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의 안전을 비는 돌무더기 등이 있다. 굴이나(도산) 샘물(북후, 도산)을 골매기로 하는 곳도 있으며 이들 샘물은 평상시에나 또는 제사때 용수로 사용된다[6].

동제는 대개 음력 정월 14일 자정 즉 15일 영시에 거행된다. 해안 지방에서는 년 2회 이상의 제의를 올리는 편이나 내륙지방인 안동에서는 년 1회의 동제를 행하는 경향이다. 동제의 시행은 마을 회의에서 선출된 제주(당주), 제관, 축관, 도가(집사)들로 요원이 구성된다. 제주는 제사를 총괄하고 도가는 제물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요즘 부락민의 감소로 제주와 도가 또는 제주 혼자서 하는 수가 많다. 이들은 집에 궂은 일이 없는 생기복덕(生氣福德)에 맞는 사람이 선출되며 제주는 부락의 원로가 이를 맡는다. 선출은 보통 행사 1주일 전후에 선출되며 선출된 제관은 그날부터 제사가 끝날 때까지 제계하고 술, 고기, 기름기 있는 음식, 담배를 끊고, 부부관계를 금하며 타지 출입을 삼가하고 집에 외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러한 금기는 제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 전체에게도 어느정도 해당한다.

제관은 왼새끼를 꼬아 한지를 듬성듬성 꽂은 금줄을 당과 제관집에 치고 당주변과 제관집 그리고 제관집에서 당까지의 길에는 황토를 뿌려 잡귀나 부정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도가는 제물과 제기를 장에 가서 구입하고 제물은 도가집에서 장만한다. 장에 갈때 타인과는 말을 건네지 않으며 심지어는 인사도 나누지 않는다. 제물은 종이에 적어서 보이고 제물의 값을 깍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증보사례편람」 구제기(具祭器)[11]에서, "대부(大夫)는 제기를 빌리지 아니하며 설혹 제기를 준비하지 못하였다하여도 평소의 그릇을 쓸수는 없으며" 라는 말과 같이 동제의 제기는 해마다 새로 마련한다. 제기라해도 밥그릇, 국그릇, 기름종지, 접시 몇개정도 때로는 냄비도 몇 개 구입한다.

제사를 올리기 위해 당에 갈때 풍물을 앞세워 제관과 동네 남자들이 함께 가는 수도 있고 제관 일행만 가고 부락민은 집에서 조용히 근신하며 소원을 기원하는 곳도 있다.

III. 동제사례

사례 1. 안동시 동부동의 동제

안동군청 군수관사 마당의 느티나무가 부신목(府神木: 수령 800여년으로 추정)으로 그 아래에는 자연석으로 단이 만들어져 있다. 옛부터 안동 부사가 매년 음력 정월 14일 자정에 부(府)의 안녕과 주민의 복을 기원하는 제를 지냈으며 최근에는 군수가 제주가 되고 군청직원이 집사가 되어 제를 지내고 있다. 시군 합병으로 96년에는 안동부시장이 동제 주제관으로 행사를 치루었다.

가) 동제례의 준비과정

정월 11일부터 시작한다. 먼저 상주가 아니고 집안에 유고가 없는 군청 직원 중 깨끗한 사람을 집사로 선정한다. 집사는 이날 한지를 끼운 왼새끼를 꼬아 금줄을 만들어 12일날 부신목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주위에 뿌린 후 부정한 사람의 관사 출입을 금한다. 그리고 이날부터 군수는 출장을 삼가하고 궂은 일을 안 보는 등 기우(祈祐)에 들어가 제사를 지낼 때까지 근신을 한다.

정월 14일 오전에 집사가 대추, 밤, 곶감, 대구포, 돼지머리, 정종, 채소, 조기 등의 제물과 한지, 양초 등을 시장에서 장보기를 해 와서 군수부인에게 제물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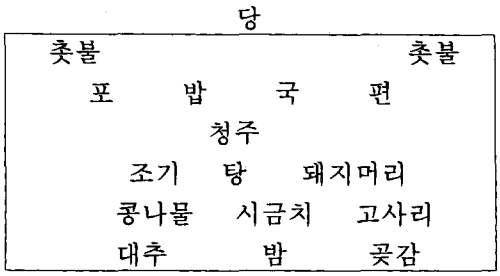

그림 1. 진설도.

네주면 관사에서 제물을 장만하고 제사에 쓰는 백편은 1말 3되 3홉으로 한다.

나) 제례 절차

정월 14일밤 12시가 되면 제관은 부신목으로 가서 바닥에 한지를 펴고 그 위에 진설을 한다(그림 1). 진설이 끝나면 제주가 술을 따르고 강신례로 재배한다. 그리고 술을 퇴주그릇에 붓고 다시 술을 따른 후 재배한 다음 고축(告祝)없이 바로 소지(燒紙)를 올리는데 이것을 축원제사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시, 군의 안녕과 시, 군민의 복을 기원하는 것과 직원들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으로 시, 군민소지, 직원소지 순으로 올린다. 소지가 끝나면 다시 재배를 하고 철상(撤床)을 한다. 즉 술은 단헌(單獻)으로 제례를 시행한다.

제가 끝나면 그날 당직자와 구경하러 온 직원들은 제관과 함께 간단히 음복을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제사에 올린 떡을 약간씩 나누어 직원들이 음복한다. 이 떡을 먹으면 재수가 좋고 병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사례 2. 도산면 가송리(가사리, 쏘두들, 올매재)동제

가사리에는 산신당과 공민왕의 딸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서낭당(부인당)과 거리당에 거리풀이를 1월 15일과 5월 단오 두차례 동고사를 하는데 이때에 쏘두들, 올미재 사람들도 참여하며 3마을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하며 그 역사는 600여년 정도라 한다. 단오때 지내는 동고사는 정월 보름 동고사 보다 축약된 형태로서, 신대를 통한 신내림이 없을뿐 그외 제의 양상은 정월 보름의 동제와 일치한다. 부인당에는 부인께 바친 화려한 색의 치마저고리가 걸려 있다. 그 오른쪽에 산신각이 있고 산신각에는 신선이 호랑이를 탄 그림이고 그 앞에 거리당인 당나무가 있다.

가) 준비과정

당주선정은 신간(神竿, 신대)를 세워 한사람이 붙잡고 서낭신에게 여쭈어 보는 형식을 취한다. 서낭님 어느 집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때 나름이 안오면 "왜 그러십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혹시 친정에 가고 싶습니까?"라고 여러가지를 물어본다. 특히 친정에 가고 싶습니까?라고 물었을때 나름이 오며 나름에 의해 당주를 선정하고 날자를 선정하여 친정에 간다. 이때를 친정에 세배하러 간다고 한다. 친정은 뒤편 봉화군 명호면 산성마을로서 그곳에는 공민왕이 모셔져 있으며 이곳 서낭님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산성마을에 가서 세배를 하고 세배돈과 그외 약간의 대접을 받고 돌아온다. 요즘은 세배를 가지 않으며 당주도 선출한다.

정월 초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당주와 제관을 선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당주는 1월 15일과 단오의 동제를 모두 주관하며 제의 때 필요한 제구(祭具)와 풍물을 1년동안 보관하고 당앞으로 되어있는 위토를 관리하여 제사 비용을 마련한다. 제관은 당주와 함께 제의의 진행을 맞는다. 당주와 제관은 마을 주민중에서 집안에 우환이 없고 복인이 아닌 사람으로 선정한다. 대개 마을 사람들은 당주를 하면 한해 농사도 잘 되고, 아들, 딸 장가도 가고 집안의 모든 일이 잘된다고 하여 당주하는 것을 원한다. 선정된 당주나 제관은 그날부터 목욕재계하고 동고사일까지 조석으로 당에 가서 절을 해야하며 또한 제사를 준비하며 열나흗날까지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드린다. 제물의 구입은 전기한 금기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장을 보고 와서 부인당에서 '장 보고 왔습니다'라고 고한다. 장보기가 끝나면 당주부부는 제사전까지 당주집에서 서낭당까지 황토흙을 뿌리고 제주(祭酒)를 빚고 음식을 만든다.

나) 제사절차

동제는 1월 14일 밤 9시경부터 시작된다. 당주집 마당에는 마을 사람이 장작불을 피우고 풍물을 친다. 당주는 바지 저고리에 흰두루마기를 입고 신간을 잡으며 제관들은 바지 저고리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유건을 쓴다. 풍불잡이들은 마당에서 반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몇바퀴 돈 후 당으로 출발한다. 그 뒤를 이어 제물을 짊어진 청년들과 당주 및 제관이 일렬로 서고 맨 뒤에 동네 남자와 아이들이 따른다.

밤 10시경 부인당에 도착하면 당 앞에 화토불(장작불)을 지피고 풍물을 치면서 당 주위를 몇 바퀴 돈다. 한참동안 풍물을 치고 난 후 풍물잡이들이 아랫마당으로 내려가면 당앞에 세워져 있었던 신간을 당주가 바로 잡으면 당 안에 종지불을 밝힌다. 이때 제관은 당 주위에 반시계 방향으로 금줄을 친다. 그런 다음 당주와 제관이 부인당에 인사를 하고 제물에 쓸 미역에 참기름을 발라 굽고 고등어 2마리도 굽는다.

금줄을 치고 나면 당주가 중심이 되어 제물을 진설한다. 진설은 부인당에 올리는 상(그림 2)과 산신께 올리는 산신상(그림 3)으로 구분된다(1996. 1. 14일 당고사 제상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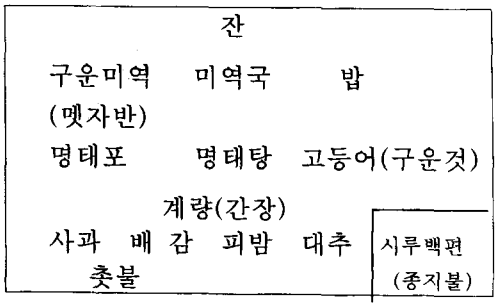

그림 2. 부인당 진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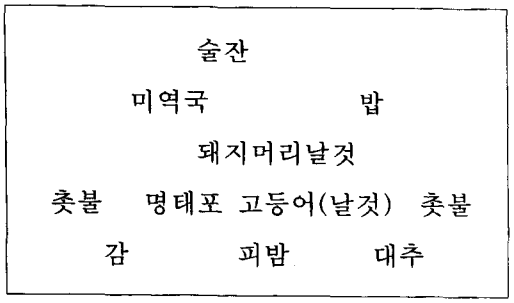

그림 3. 산신당 진설도.

진설이 끝나면 당주가 솔잎뭉치로 바가지에 담겨 있는 물을 적셔 제장(祭場) 주위에 뿌리고, 바가지를 칼로 친 다음 단위에 엎어 두는 것으로 잡귀를 물리치는 '부정치기'를 한다. 이때 '잡귀야 물러가라, 물은 물로 불은 불로 신령님은 신령님으로 물밑에 부정은 물로 가고 불아래 부정은 불로 가고 등'의 주문을 외운다. '부정치기'가 끝나면 당앞에 제관들이 일렬로 꿇어 앉고 그 앞에 당주가 앉는다. 유교식의 제례절차로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의 순서로 제의는 진행된다. 그런 다음 잠시 쉬었다가 풍물이 시작되고, 제관과 풍물잡이들이 원을 그리고 돌면서 어깨춤을 추기 시작한다. 이때 당주가 신간을 잡고 원의 중앙에 서면 '진법치기'가 시작된다. '진법치기'는 당주와 제관이 진을 만들고 풍물잡이들이 상대진을 쳐서 서로 마주보면서 춤을 추기도 하며 서낭대와 함께 아래당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 9번을 하는 것으로 어울려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도 한다. '진법치기'가 절정에 이르면 신간이 당의 지붕에 붙고, 이 때 신간에 매어 단 치마와 저고리를 당안에 모셔 둔다.

밤 12시가 되면 각 가구별로 한장씩 소지를 올리며 축원을 해 준다. 그 다음 대동소지, 우마소지 순서로 올린다. 소지 올리기가 끝이나면 음복을 한다. 이 때에는 먼저 '제반'을 한다. '제반'은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한지로 싸고 당안의 벽 위에 놓아 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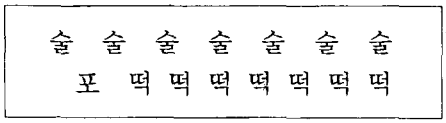

그림 4. 거리풀이의 제상차림.

'제반'은 동제 뿐만 아니라 가신제(家神祭)인 성주고사나 조왕, 삼신고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주의 경우 처마밑 천정위에, 삼신제반은 옷장위에 조왕제반은 부엌아궁이 속으로 던져진다. 이것은 제의에서 모셔진 신이 머무는 곳에 제물을 남겨 두는 것같다. 음복상은 두 상이 차려지고 떡은 시루째 보자기에 엎어서 칼로 잘라서 나누어 먹는다.

음복이 끝나면 다시 풍물이 시작되고 '거리제'를 지낸다. 거리제는 거리당에서 지내는데 풍물이 시작되면 당주가 당나무에 금줄을 치고 상을 차린다(그림 4). 이 때 당주는 주문을 외우며 칼을 던지는데 칼끝이 골짜기를 향할 때까지 계속된다. 칼끝이 바깥 쪽을 향하게 되면 그 자리에 십자를 긋고 그 중심에 칼을 꽂아 둔 후 술 7잔과 각 골짜기의 이름을 부르며 토시들에게 서숙떡(黍餠)을 조그맣게 조각을 뜯어서 던진다. 이것은 각 골짜기의 잡귀들이 먹고 물러나라는 뜻이다. 이 때 던진 떡은 약떡이라 하여 이것을 먹으면 일년 내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아이들이 서로 주워 먹는다. 그 다음 제관들이 재배를 드리고 거리제를 마친다. 거리제를 마치면 메구꾼(풍물꾼)들과 동민들은 밤늦도록 메구를 치며 논다.

이상의 제물에서 각 영신(靈神)에게 받쳐지는 제물이 지닌 의미를 살펴보면 산신은 통상적으로 호랑이로 인식되기 때문에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고 또 산신은 사신(私神)이나 왕신(王神)과는 다르고 최고로 높은 신(神)이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쓰던 제기(祭器)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산신을 위해 따로 장만된 제기를 써야하며 숟가락은 쓰지 않으며 젓가락도 집에서 쓰던 것은 사용하지 않으며 옛날에는 억쇄광이나무를 꺾어다 썼다. 또한 산신의 제물은 익히지 않은 날것을 올려야 하며 자르거나 깎거나 해서도 안되며 있는 그대로를 올려야 한다는 등 금기가 따른다. 그래서 산신의 제상차림의 제물은 모두 두미(頭尾)를 자르지 않으며, 고등어도 날 것 그대로를 써야 한다.

이러한 제상차림은 부인당에 바쳐지는 제상차림과 확연히 구별된다. 같은 날 부인당 제상차림에서 두미는 물론 하지 않으나 날것은 바치지 않는다. 이것은 산신(山神)과 인간의 엄연한 구분이다. 고등어도 부인당신에게는 제의 장소에서 황토불에 익혀서(불김 쐬운다)

받친다.

부인당 제상차림의 특징은 미역국과 미역을 참기름에 발라 황토불에 구운 멧자반이 차려진다. 이것은 성낭당이 부인당으로 불려지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먼저 신격(神格)에 대한 여신으로서의 인식과 다음은 직능신으로서 아기의 점지 또는 출산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을에서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이거나 혹은 아기가 아프면 부인당에서 빌기도 한다. 또 하나는 부인당 제상차림과 구분되는 것은 거리풀이에서의 제상차림이다. 거리풀이는 일곱골짜기를 지켜주는 일곱토시를 위한 것으로 상을 차리지 않고 보자기 같은 것을 펴고 지낸다. 제물의 구성은 7잔의 술과 7조각의 떡 그리고 명태포이다. 이중에서 부인당에 바쳐지는 온시루째의 백편과는 대조적으로 거리풀이에서의 떡은 가루를 굵게 빻은 떡이거나 서숙떡(잡떡)이다. 부인당의 떡은 칼집을 내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반면 거리풀이의 떡은 손으로 뜯어서 차려진다. 이상의 각 영신에 바쳐지는 제물은 신의 위계에 따라 즉 상위신이냐 하위신이냐에 따라 제물의 형태가 달라지며 제의 행위도 달리 표현된다[6,12].

산신에게는 신의 위계를 한층 높게 인식하여 일상의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날것을 받침으로써 산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으며, 부인당의 신에게는 미역과 곱게 빻아 찐 온시루의 흰떡을 받침으로써 아기의 점지, 출산, 주민들 생명의 보장을 부여 받으려 한다고 볼 수 있다. 일곱거리신에게는 부인당과의 위계를 달리하여 조를 섞은 누런색의 서숙떡을 받침으로써 골짜기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동제의 제물의 내용은 시대나 경제적 요인이나 풍년, 흉년과 같은 요인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IV. 동제의 제물

1. 제물준비와 제례규범

안동지역에서 1994년 안동민속 박물관에서 조사한 동제 실시 마을 현황[6]과 그외 몇편의 보고[1,7,8,9,12]를 정리한 결과 표 1과 같다. 각 마을마다 동제실시 현황은 표 2와 같다.

위의 표 1에서 안동지역 88개마을 동신의 성격은 여신이 43개마을, 부부신이 17개마을, 남신이 9개마을, 산신 2개마을, 그외 마신, 거리신 등 다양하다. 한 마을에서 3개의 당을 모시는 곳이 4개마을 2개의 당을 모시는 곳이 7개마을 이었고 그 나머지 대부분의 마을에서 하나의 당을 모시고 있다.

당제사에는 남자만 주로 출입하였으나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제관선출에 어려움 때문에 제관 부부가 함께 지내는 곳이 많아졌다.

마을에 따라서는 특정제물을 마련한다거나 혹은 특정제물을 쓰지 않는 전통이 있기도 하다. 안동의 토계동에서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쓰지 않으며 임하면 금소동에서는 생닭으로 신목앞에서 잡아 피를 뿌리고 생닭고기를 쓴다.

타지역인 문경, 산양에서는 돼지를 통채로 쓰되 콧구멍에 대추를 박아 쓰는가 하면 예천의 산성마을에서는 산신제의 제물 돼지는 반드시 검은 털의 돼지여야 하고 돼지를 잡아 내장도 빼지않고 다리도 자르지 않고 끓는 물로 튀하여 털만 제거하고 그대로 세워 쓰며[13] 또 영주 순흥, 두렛골에서는 소 한마리를 현장에서 희생으로 잡아 올리는 경우도 있다[1]. 동제에서의 희생은 바로 이것으로 의사전달을 의미한다[12,14].

그러나 안동지역의 동제례규범은 도산면 가사리와 같이 3헌작과 축문을 갖추는 유교식의 제례형식을 끝내고 소지를 올리는 곳이 8개 마을 이었으나 대부분의 마을에서 진설 후 술 또는 감주를 올리고 재배한 다음 축문을 읽고 소지를 올리는 데 그 순서는 원당소지, 골매기소지, 제관소지, 가구소지, 우마소지, 농사소지 등으로, 마을의 주민이 많은 곳에서는 100여장의 소지가 쓰인다. 제일 간략한 마을(모티, 금단)에서는 제물 진설후 헌작의 술을 올리는 의례도 없이 단순히 재배로서 끝나며 동제시각은 낮 10~12시로서 촛불마저 없이 한다. 축문이 있는 곳도 34개 마을 뿐이다.

2. 제물내용

① 제물로 밥을 쓰지 않는 동제가 14개마을. 국을 쓰지 않는 동제 18개마을(2개 마을은 물을 썼음)이 된다. 떡을 쓰지 않는 동제도 14개 마을이다. 떡은 74개 마을에서 모두 백설기를 쓰고 시루째 쓰는 곳은 5개 마을이다. 서숙떡(黍餠)은 거리당을 모신 한곳에서 쓰고 있다. 시루에 찐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떡의 하나로서 무속(巫俗)의 떡이 증편 또는, 백설기, 팥시루떡등 굿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15,16] 비해 동제의 제물로 쓰는 떡은 한결같이 백찜(백설기)을 쓰고 있다. 이는 인간의 출생에서 삼칠일까지도 산신(産神)의 보호아래 성계(聖界)에 둔다는 의미에서 백색무구(白色無垢)의 백설기만으로 하는 것[15]과 같이 동제 자체를 황토를 뿌려 모든 부정을 방지하고 최고로 성스럽게 한다는 뜻에서 떡도 백색무구의 백설기만 쓰게 된것으로추정된다.

② 탕은 대부분의 마을(67곳)에서 쓰지 않았으며 3탕은 4개 마을에서 썼고, 단탕이 16개 마을이었다.

어육류중 포는 대부분 명태포(58)를 이용하고 대구포(8), 오징어포(5) 순으로 썼다. 생선은 8종류가 쓰였으며

표 1. 안동지역 동제음식 분류(88개마을) (1994년도조사)

음식 이용수	밥	국	탕	편 (백편)	과실류		어육류								생(件)	음청류	제상의 촛불		헌작		동신 성별	
							포		생선				육류									
유	74	70	21 (단탕 16)	74	3실과	63	명태	60	동태	24	문어	13	쇠고기	8	닭 19 (익힌것 2)	가양주 58 (헌작 52)	2자루	52	3헌	8	여 신	43
무	14	18	67	14	4실과	8	대구	8	조기	15	상어	5	돼지고기	2	돼지머리 6 (익힌것 2)	감주 46 (헌작 28) (생감주 12)	1자루	18	2헌	11	부부 신	17
					5실과	10	오징어	5	고등어	13	방어	1	식해	5			종지불 19 (초도함께 8)		단헌	60	남 신	9
					7실과	1			청어	11	멸치	2	쓰지않는곳	25		물 2	쓰지않음	1	무	9	기 타	19

표 2. 안동지역 동제의 제물(88개마을)

연번	소재지	소지명	동제					밥	편	국	탕	과	채	포	어육	생	술 (헌작)	감주 (헌작)	비 고	
			당의 명칭	형태	제의 일시	당의 성별	축문 소지													
1	안동시 동부동 외 1마을			부신목 (府神木) 느티나무	1.15 밤12시		소지	○	백편	○	○	대추,밤, 곶감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대구포	조기	돼지 머리	정종 (2)		백편쌀은 1斗 3升3合	
3	풍산읍 수1리 외 3마을	하동	천지당 골매기당 국신당	당집 동수, 느티, 소나무	1.14 밤12시	男神, 女神	축문, 소지	○	백편			대추,밤, 곶감	미나리	명태포	조기, 청어,	닭	청주		천지당	제수는 익히지 않는다. 보름날이 밝으면 음복을 하고 가면을 쓰고 풍물을 치며 춤을 추면서 흥겹게 논다.
														명태포	조기, 청어			○ (1)	골매기국 신당	
7	길안면 송사1리 외 16마을	송제		당짐 동수, 소태, 회나무	1.14 밤12시	男神	축문, 소지	○	○	○		대추,밤, 곶감	콩나물 고사리 무,미역	대구포	상어, 조기, 고등어, 쇠고기	돼지 머리		○ (1)	당에 도착하여 제물을 장작불에 살짝 익힌다.	
24	남선면 원림리	노암마	서낭당	입석(立石) 동수 느티나무	1.14 밤12시		축문, 소지	○	○	○		대추, 곶감	콩나물, 숙주나물, 고사리			장닭		싱감주 (첨잔)	장닭은 살짝 삶아서 올린다.	
25	남후면 무릉리외 1마을	묵느무	상당 성황당 하당	입석(立石) 동수 느티나무	1.14 밤12시	男神, 女神	소지	○	백편	○	3탕	대추,밤, 곶감		대구포	고등어		막걸리 (1)			
27	녹전면 매정리외 2마을	새미		당집(입석)	1.14 밤12시	女神	축문, 소지	○	○	○	○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대구포			○ (1)	생감주		
30	도산면 태자리외 8마을	고리재	성황당	당집	1.14 밤12시	부부 신	소지	○		○		밤,대추, 곶감	콩나물, 고사리, 시금치	명태포	청어, 조기		○ (첨잔)		동민들이 풍물을 치면서 제관 뒤를 따라간다.	

표 2. 계속

연번	소재지	소지명	동제					밥	편	국	탕	과	채	포	어육	생	술 (헌작)	감주 (헌작)	비 고
			당의 명칭	형태	제의 일시	당의 성별	축문 소지												
30	도산면 가송리외 2마을	가사리 쏘두들 올미재	부인당 (공민왕) 딸	당집	1.14 밤12시 5.5 밤자시 년 2회	女神	소지	○	백편 시루 째	미역 국	○	대추,밤, 곶감,배, 사과	미역	명태포	고등어 2		○ (3)		부인당에 간장을 씀. 풍물을 치면서 대잡이(무당)과 함께 당으로 간다. 제사도중에 풍물을 치고 춤을 춘다.(개인당은 금화접씨가 모시는 당이 있음)
			산신각	당집															
			거리당 (7신)	동수 느티나무		산신		○		미역 국	○	대추,밤, 곶감,배, 사과		명태포	고등어 2	돼지 머리 날것	○		
						거리 신			떡 7 그릇					포			술 7 그릇		
42	북후면 도촌리외 2마을	도계촌	성황당	당집 동수 느티나무	1.14 밤12시		축문, 소지	○	○			대추,밤, 곶감	김,산채, 콩나물	명태포	조기	닭	청주 (1)		제관 선정된 것을 "망기 받는다"고 함
45	서후면 금계리	금제	상당, 하당	입석 동수	1.15 새벽1시	男神, 女神	축문, 소지	○	○			대추,밤, 곶감	생미역	명태포	고등어		○ (1)		향사용
46	예안면 신남리외 14마을	정자골 베틀골	서낭당	입석	1.14 밤12시	女神	소지	○	백편	○		대추,밤, 곶감			물명태, 문어		○ (2)		비교적 간소함, 떡에 소금, 설탕 넣지않음.
61	와룡면 태리	말바우		동수 느티나무	1.14 밤12시	女神	축문 소지	○	백편	○		대추,밤, 곶감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 (1)		
62	일직면 귀미리외 2마을	안귀미	천지당	동수 참나무	1.14 밤자시	山神	축문 소지	○				과일	채소		청어나 조기			○ (1)	
65	임동면 대곡리외 14마을	복수천	서낭	동수 소나무	1.14 밤12시	女神	축문 소지	○		○		대추,밤, 곶감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포				○ (1)	부부 같이 당에 간다.
80	임하면 고곡리외 5마을	긴사리	서낭당	동수 소나무	1.14 밤12시	男神 女神	소지	○	○	나물 국		대추,밤, 곶감	콩나물, 무, 고사리		물명태, 대구		○ (1)		제물은 날것으로 한다.
86	풍천면 하회리외 2마을	하회	서낭당	당집	1.15 새벽6시	女神	축문 소지		백편 시루 째			대추,밤, 곶감,배, 땅콩,귤	콩나물, 고사리	명태포 또는 오징어 3	고등어 3,명태3, 청어	돼지 머리	막걸리 (3)		유교식당제, 육류는 날고기, 3헌작
			국신당	당집											조기 1	닭 1, 쇠고기	○ (3)		제물은 차리지 않고 헌작의례만 한다.(국신당, 삼신당)
			삼신당	동수 느티나무													○ (3)		

그중 동태(24)가 가장 많이 쓰이는 생선종류이고 생선 사용마을에서도 1~2종류였고 멸치도 2곳에서 썼다. 생선을 사용하지 않은곳도 25개 마을이나 되었다. 육류는 쇠고기 8곳, 돼지고기 2곳이고 생선은 일반적으로 비린내가 나지 않은 고기가 많이 쓰였다[1-7]. 생(牲)으로 돼지머리가 6곳이고 닭이 19곳으로 닭을 쓰는 곳이 더 많았다.

종묘의 큰제사인 대향(大饗)에는 날고기를 쓰며 사직의 제사인 삼헌(三獻)의 예에서는 반숙의 고기를 쓰고 소제(小祭)와 소례(小禮)의 일헌(一獻)에는 완전히 익은 고기를 쓴다. (禮記 郊特牲)[17]고 한 것과 같이 동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1헌을 하고 있어서 산신을 모시는 곳을 제외하고는 고기를 거의 익혀서 쓰고 있다[1-7].

③ 과실류에서는 과일없이 제를 지내는 곳이 7개마을이고, 67개 마을에서는 3실과를 쓰고, 4개 마을에서는 여러 종류의 과일을 쓰고 있다.

④ 술은 용주(龍酒) 또는 현장에서 술을 빚어 땅에 묻었다가 꺼낸 조라술[18] 등으로 58개 마을에서 썼으며 술 대신 주로 여신이거나 남여신을 모신 곳에서 감주를 이용하는 곳이 46개 마을이고 술과 감주를 함께 쓰는 곳도 13곳이나 된다. 「三國遺史」가락국기(駕洛國記)에 세시마다 술(酒), 감주(甘酒)와 떡(餠), 밥(飯), 차(茶), 과실(菓)등 으로 제향한다는 기록으로 제향에 술과 감주가 함께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곳 동제의 감주는 쌀밥을 엿기름물에 삭혀서 달이지 않은 생감주를 쓰기도 하고 또는 생감주의 밥만 접시에 놓는 곳도 있으니 이는 일반기제사에 쓰이는 제례용의 밥식해(食醢)에 해당된다[19].

⑤ 제상의 불은 종지불을 쓰는 곳이 19곳이며 이 가운데서 초불을 함께 쓰는 곳이 8곳이나 되었다. 그외 초를 쓰되 초 한자루만 쓰는 곳이 18개마을, 그러나 대체로 초 2자루를 52개 마을에서 쓰고, 옛날에 많이 써왔던 종지불은 차츰 줄어들고 종지불을 쓸때는 신위 바로 앞에 놓아 제상의 뒤쪽 가운데 자리에 위치하고, 종지불의 원료는 대개가 참기름을 짜서 쓰고 있으며 참기름은 기름 중에서는 불이 가장 밝았다고 한다. 참깨는 식용을 하는 것 이외 등불용, 향료, 의약용, 미라나 종교의식으로 몸에 바르는 것 등에 사용하는 것[20]으로 보아서도 당신(堂神)에게 불을 밝히는 것 외에 하나의 종교의식이나 향료를 제공한 의미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것과 관련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반 유교식 제향에 필수품인 향은 임동면 한실과 서후면 금제 2마을에서만 목향을 쓰고 있을 뿐 기타 마을동제에서는 향을 태우지 않는다.

새로 구입하여 사용한 제기는 동제가 끝난 뒤 제관이 소유한다. 이때 한 제관이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지난 해에 사용했던 제기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사용해도 무방하다. 마을 제기를 마련해 두고 쓰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1994년 금오산 문화재 조사에서 동제를 조사한 결과 표 3과 같다[21].

표 3의 동제 제물의 특징은 금오산 기슭에 모둠살이를 이루고 있다는 지리적 공통성의 토대로 인하여 당의 수가 어느 마을이던 상당과 하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당은 한결같이 금오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산신을 모시는 당으로 되어있다. 평지마을의 경우에는 산신당이 없는것이 일반적이다. 마을단위의 공동체 신앙은 마을이 입지하고 있는 생태학적조건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금오산에는 절이 많아 금오산 기슭의 마을 동제가 마을 가까이에 자리잡고 있는 사찰과 연관을 맺고 있는 특징을 보이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본다. 동민이 줄어 동제실시가 어려워지자 갈항은 갈항사에서, 숭상리는 선봉사에서, 부상은 백운사 등에서 제작기 동제를 대신 올리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21]. 동제의 제물로는 상당인 산신제에는 돼지나 돼지머리, 닭, 등의 희생으로 날것의 제물이 거의 따르는 특징을 이루고 있다. 또한 八公山 지구 유적지 조사(1994년)[22]에서도 동제실시 8개 마을중 6개 마을에서 산신을 모시고 제례의식은 모두 단헌에 축문 또는 소지를 올린다. 제물에는 돼지머리가 2개마을, 장닭날것 4개마을, 암닭 1개마을, 익힌닭 2개마을 등 모두 산신제의 특징을 보였다.

한편 울진의 문화재(1991)[23] 조사에서는 해변이란 특성으로 동제의 성격도 풍어제(豊漁祭)의 양식이 많고 어촌계가 주동이 되지만 마을의 안녕을 위하고 마을의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인식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민이 아닌 사람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물은 해물류가 주류를 이루고 닭을 쓰지 않은 곳도 있으며 희생으로 쓰는 날고기도 없고 다만 쇠고기나 돼지고기 또는 닭을 익힌 것으로 쓰고 그외는 타지역 동제와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팥(小豆)에 영력(靈力)을 인정하여 민속의례식품으로 동지, 원단 등에 주술종교적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붉은 색채에 기인한 것 같다[24]고 하나 동제의 제물에는 전혀 이용되는 일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결과 해안 지방과 산악지방에 비하여 준내륙인 안동지역은 제물이 극히 소박하고 단조로웠으며 희생물인 대뢰(大牢)는 없었으며 소뢰(小牢)에 해당하는 돼지머리도 6개 마을로 극소수였다. 그러나 제물을 구입하고 만드는 과정의 정성은 부정을 막기 위한 지극정성(精誠至上主儀)이 있어 음식을 맛볼까 두려워 입을 수건으로 매고, 음식에는 대체로 간도 하지

표 3. 금오산 지구 동제의 제물 (1994년도 조사)

연번	소재지	소지명	동제 당의 명칭	동제 형태	동제 제의 일시	동제 당의 성별	동제 축문 소지	밥	편	국	탕	과	채	포	어육	생	술 (헌작)	감주 (헌작)	비 고
1	구미시 수점동		산신당	상당 (돌무지)	1.1		소지	○				3실과				돼지머리		엿물 (3)	20년전 중단되었다가 1984년부터 구미시에서 주관
				하당 (느티나무)												돼지 뼈			
2	금릉군 남면 오봉2리	길항	산신당	상당(제단)	1.3 자정		축문	○	○			3실과		○	조기 2마리		○		3년전부터 길항사주지가 대신 동제를 지냄. 새마을 지도자가 참여. 하당은 돼지머리와 떡 3그릇으로 제사한다.
				하당(돌무지)					○							돼지머리	○		
3	남면 부상 1리	부상	산신각	백운사 산신각	1.15 자정		소지	○				3실과	미역		조기		○		6.25이전에는 중당의 광장에서 별신굿을 했다. 하당의 서낭당에서는 제를 올리지 않고 금줄만 쳤다.
			산신당	광 장									나물			돼지 (온마리)			
			서낭당	돌무더기															
4	아포면 대성리	대증	산신당		1.15 자정			○				3실과	○			돼지 온마리	○		6.25이후부터는 당은 남아 있으나 동제는 하지 않고 있다.
			골매기당	당나무															
5	칠곡군 북삼면 숭오3리	숭산	상당	제단	1.15 자정		축문 소지	○	○			3실과	미역		조기		○		10년전부터 선봉사에 위탁하여 지냄. 상당과 중당은 산신을 하당은 골메기를 제사함.
			중당	소나무												생닭			
			하당	느티나무															
6	북삼면 숭오3리	강진	상당 (산신)	제단	1.9 자정		축문 소지	○	○	미역국		3실과	○	대구포	쇠고기 건어물	돼지			유일하게 당제를 지내고 있는 곳
			하당 (골메기)	버드나무															

않거나 하더라도 일체 맛을 보지 않았다. 즉 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한 신의 영험을 기대하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진지하게 기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전마을 동민의 단합과 동질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기』[17]에서 '제사는 현장에서 제장에 자리를 깔지 않고 그곳을 쓸기만하고 제사지내는 것은 검소함을 존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제기를 질그릇과 바가지를 사용하는 것은 천지의 본성인 질박함을 상징한다했으니 동제의 소박한 격식은 이와 연관된것 같다. 모든 사람이 신에게 성의를 다하여 사귀기 위해서는 그 제례나 예법에 대해서 인간의 안락을 연결시키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물에는 평상시에 쓰는 기름기가 많은 아름다운 조미료를 쓰지 못한다는 옛말이 동제에서도 잘 이행하고 있는것 같다.

제물은 생태적 배경에 따라 다르며 영덕군 오보리의 동제 제물은 모두 어물뿐이다 또한 어물도 제의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생태적 배경 속에서도 문화적 차이에 의해 달리 표현된다. 또한 동일한 생태적 배경과 동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물이 서로 다른것은 각 지역의 문화적인 표상인 것이다. 더우기 제물은 제의적 맥락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신과 인간의 감응작용의 매개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지하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상징물인 것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1994년도 안동지역 88개 마을의 동제 제물을 조사한 결과

1. 안동지역 동제당의 성별에서 여신이 43개 마을, 부부신이 17개 마을, 남신이 9개 마을, 산신 2개 마을, 기타 동수(洞樹) 등으로 여신을 모시는 동제가 월등하게 많다. 동제의 제례는 유교식이라고 하나 일반 가정의 기제사에 비하여 제물과 제례규범이 보편적으로 간략한편이다. 제례에 술을 헌작(獻酌)하는 곳이 52개마을(술을 쓰는 곳은 58개 마을), 감주를 헌작하는 곳이 28개 마을(감주 쓰는 곳은 46개 마을)이고 그외 술이나 물, 감주를 차려 두는 것으로 헌작없이 하는 곳도 8개 마을이 된다.

2. 동제는 상고성이 깊게 내재되어 떡은 74개 마을에서 백색무구(白色無垢)의 백설기만 쓰고 시루째 쓰는 곳(5마을)도 있으며 시대변천에 따라 생(牲)의 고기들이 큰 가축에서 작은 가축으로 그리고 진설시 종지불이 촛불로 변해 감을 알 수 있다.

3. 제례규범이 유교식이라고 하나 축문을 갖춘 곳이 34개 마을이며 술을 3헌(三獻)하고 축문을 갖춘 마을은 8개마을뿐이다. 그외 60개 마을이 술을 1헌으로 하고 강신 재배 이후 소지 올리고 난후 철상하는 즉 기복의 소지를 올리는 축원제례에 집약되고 있다.

4. 탕을 쓰는 곳이 21개 마을뿐이고, 67개 마을은 탕을 쓰지 않으며, 국을 쓰지 않는 마을도 18곳이나 되었다. 밥과 떡을 쓰지 않는 곳도 각각 14개마을이다.

5. 과실류는 필수제물이며 63개 마을에서는 3실과를 쓰고있어 불천위제례 제수에서 4실과를 기본으로 하는 우수 이용도가 더 높았던 것[10]과는 대조가 된다.

6. 어육류를 쓰지 않는 곳도 25개 마을이나 되었고 고기는 대체로 익혀서 쓰고 생으로 쓰는곳은 닭을 19개 마을, 돼지머리를 6개 마을이었고, 고기식해(육류 또는 생선)가 5개 마을에서 쓰고 있다. 포는 73개 마을에 쓰고 있으므로 포의 이용도가 높은 편이다.

7. 향로에 향을 피우는 곳은 2개 마을뿐으로 동제에서는 일반적으로 향을 피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신의 성격에 따라 산신(山神)의 제물은 돼지를 가장 적절한 제물로 생각하고, 또한 제기에 있어서도 가정에서 쓰던 제기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따로 마련하고 숟가락은 쓰지 않으며 젓가락도 억쇄광이풀을 꺾어다 쓴다. 그리고 어육류와 미역까지도 날것으로 쓰며 자르거나 깎거나 해서도 안되며 모두 두미(頭尾)를 자르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올려야 한다는 금기가 따른다. 그러나 인간의 신을 모신 제물은 거의 익히고 생(牲)으로 쓰는 돼지는 산신과 남신에게 주로 쓰고 또 닭도 쓰고 있으나 닭은 여신(5마을)에게 주로 쓰고 있다.

참고문헌

1. 慶北禮樂誌 禮俗篇 洞祭 p.515-556 慶尙北道 嶺南大學校 1989.
2.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권 16 산신제(176) p.149 동아출판사 1983.
3. 國朝五禮儀 성종 5년 1474년.
4. 經國大典(1485) 법재처 1965.
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권7 p.324-3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6. 學術叢書. 安東의 洞祭, 安東民俗博物館 1994.
7. 金明子. 악사(岳砂)의 洞祭와 家神信仰 안동대학교 안동문화 제8집 p.29-45 1985.
8. 이남식. 五鳳山城 山神祭 堂告祝, 한국민속학 제6집 한국민속학회 1983.
9. 임하댐 수몰지역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p.336-344(민간신앙편) 경상북도, 안동대학 박물관. 1986.
10. 윤숙경. 안동지역의 제례에 따른 음식문화(I) -불천위제례와 제수-,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4, p.439-454. 1996.

11. 黃必秀, 池松旭. 증보사례편람 1900.
12. 이숙희. 가사리 洞祭의 祭物構成과 意味分析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석사학위논문 p.42-55 1996.
13. 林在海. 韓國口碑文學大系 7-1 경상북도 醴泉郡篇(1) p.281-28 韓國精神文化研究阮 1988.
14. 李淇泰. 한국민속과 문화연구 洞祭에서의 희생과 의미전달과정, 형설출판사 1990.
15. 윤서석. 한국식품사 연구 p.22-23, p.99 신광출판사 1993.
16. 서울특별시. 무속의 음식 서울 민속대관 9, p.449-457, 1995.
17. 禮記 제 11 郊特牲 명문당 1995.
18. 윤숙경. 우리말 조리어 사전 p.172 신광출판사 1996.
19. 윤숙경. 안동식혜의 조리법에 관한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1, p.106, 1988.
20. 小林貞作. ゴマの來た道 p.3 岩波新書 1986.
21. 윤숙경, 임재해. 金烏山文化財地表調查報告書 동제사 음식 p.344-345, 공동체신앙 p.282-304, 安東大學校民俗學研究所 1994.
22. 林在海. 人公山地區 傳統文化遺跡地保存開發計劃 p.126-142 경상북도 1986.
23. 研究叢書 2. 蔚珍의 文化財 p.251-262 울진군. 안동대학교 1991.
24. 金宅圭, 한국농경세시의 이원성 한국문화인류학 20집 p.107-150, 1988.